

기아 송호성 사장 “올해 320만대 판매 목표”

브랜드 경영 강화·PBV 체계 구축
중고차 시장 진출 올해부터 본격화
주총서 정관 바뀐 중개업 추가 승인

기아 송호성 사장은 지난 17일 올해 사업 전략과 관련, “고객 중심의 브랜드 경영 고도화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 실행체계 구축, EV9 등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판매 320만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79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송 사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올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적은 7,930만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지속될 전동화 부문에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기아는 이러한 어려운 글로벌 경영 환경을 고려해 ▲고객중심의 브랜드 경영 고도화 ▲PBV 사업 실행체계 구축 ▲EV 플래그십 모델 출시를 올해 3대 전략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송 사장은 “기아의 핵심 가치에 기반해 고객 지향 마인드로 전환하고, 고객 중심의 브랜드 조직문화를 심도 있게 내재화하겠다”면서 “데이터 중심으로 고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고객 경험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PBV 사업 실행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PBV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 중심 가치를 창출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2025년 미드사이즈 PBV인 SW 론칭을 시작으로 라지·스몰사이즈를 포함한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향후 자율주행, 로봇과 연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송 사장은 “올해 5월 출시 예정인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 EV9의 성공적 출시를 통해 전기차 시장 입지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차입금 최소화하로 부채비율을 개선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SDV, 미래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아 주총에서는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위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이 승인됐다. 아울러 사내이사로 주우정 재경본부장이 재선임되고, 신재용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전찬혁 세스코 대표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대기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1년 유예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LG전자 매장 새단장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디지털전문관 LG전자 매장이 최근 리뉴얼 오픈했다. 매장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다양한 최신 가전은 물론 OLED TV, 나노셀 TV 등 최신 기술력의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인테리어를 위한 빌트인 제품을 강화했으며 LG전자 오브제 상품라인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새단장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구매고객 대상으로 5% 할인 및 구매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오늘부터 접수하세요”

대출이자 일부 보전... 부담 완화
총 8,000억원 규모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19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급 채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은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한다. 다만,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은행을 포함한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

담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도 이날 함께 시행된다.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 대한대출을 지원한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20~21일,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22~23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본부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1811-3655)에서 상담 가능하다. /홍승현 기자

대체공휴일 1일 소비지출액 2조4천억

현대경제연 “내수 진작 기대”

정부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 등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1일간 발생하는 소비지출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해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보고서에서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

를 2022년 평균 취업자 수인 2,809만명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2021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기간 사용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고려해 대체공휴일 1일간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5,830원으로 가정해 산출했다.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와 대체공휴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곱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를 이용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생산 유발액은 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000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4만명으로 추산됐다. 파급 경로별로 보면, 음식점·숙박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지출액이 약 9천억원을 차지하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숙박 서비스 관련 취업 유발 인원은 경제 전체 취업유발 인원의 42.5%인 1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지출액은 6,3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음식료품 관련은 2,700억원,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 기타 부문에서도 6,100억원의 소비지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시-광은, ‘2045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기후위기 대응·ESG경영 실천
온실가스 감축 실현 적극 앞장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와 광주은행은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광주가 ‘2045 탄소중립도시’로 성장하는데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시의 1급고를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시인 실현 사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광주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환경보호 분야와 더불어 포용금융 및 생산적 금융 실천에도 주력하

며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 전략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에 앞서 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 ‘탄소포인트 기부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08년 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제’를 시행해 광주 도심 내 ‘탄소포인트 숲’ 조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 및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 시 탄소포인트(에코머니)를 지급해주는 ‘K-Green신용·체크카드’를 통해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K-EV 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 캠페인에도 참여해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조건부 장기 임대를 제공하고, 원리금을 상환 완료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 농지다. 대상 농지는 1,000㎡이상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으로, 농업

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단,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청년농의 유입 확대 및 영농 정착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서광주세무서는 최근 광주시자동차매매조합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금설명회를 개최했다. /서광주세무서 제공

서광주세무서, 자동차매매조합서 세금설명회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서광주세무서는 최근 광주시자동차매매조합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이번 세금 설명회를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발점으로 삼는 한편 투명하고 신뢰받는

매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서광주세무서와 납세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무업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서 서광주세무서장은 “앞으로도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세금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 세정 및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